



한국해양공학회소식

The Korean Society of Ocean Engineers

2010. 5 제 9 호

News letter

#613-804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65-6 원오피스텔 301호
TEL(051)759-0656, FAX(051)759-0657 E-mail : ksoe21@kornet.net

Contents

- 01면 회장 인사말
- 02면 학회소식
- 03면 학회 발전방안 I
- 04-05면 학회 발전방안 II
- 06면 해양플랜트 인재양성센터
- 07면 공지사항
- 08면 회원 및 회원사 동정
- 09-10면 신입회원소개
- 11면 입회안내 및 임원소개

발행처 / 한국해양공학회
 발행인 / 박한일
 편집인 / 김윤혜

편집위원회

- 위 원 장 / 김윤혜 (한국해양대학교)
- 편집위원 / 안석환 (부경대학교)
- 홍남식 (동아대학교)
- 이관목 (한국해양연구원)
- 권순홍 (부산대학교)
- 신동목 (울산대학교)

회장 인사말



회장 박 한 일

존경하는 한국해양공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날씨는 예년에 비해 아주 유별합니다. 지난겨울 내내 한파가 몰아치더니 봄마저 겨울 같은 쌀쌀한 날이 많았습니다.

올해 봄 바다에서는 안타까운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중 폭발에 의해 해군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나서 갑자기 침몰했던 까닭에 46명의 수병들이 백령도 앞 바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번같이 많은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바다에 시선을 돌린 예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사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해양에 관련 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된 사건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1000톤에 가까운 무거운 선체를 해저에서 인양하여 바지선에 탑재하는 작업이 있었고 선체 절단면 재료 검사 및 해저에 가라앉은 폭발물 잔해의 탐색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해중기술의 첨단화를 비롯하여 우리 해양공학자들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한층 높아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다는 애환과 슬픔의 장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해양인접국들은 바다를 통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해 왔으며 앞으로도 여전할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 많은 나라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산업 활동이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관련된 산업 활동의 범위가 연안을 넘어 대양, 심해로까지 확대되며, 그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진다는 것입니다. 해양산업의 발전이 고용과 부(富)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인식되면서, 여러 나라의 정부가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부의 산업혁신기능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와 산업계가 해양산업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바다를 다소 등한시 했던 중국마저도 근래에 바다에 엄청난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해양산업 발전에 있어서 우리 해양공학자들의 기여가 더욱 크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석유·가스개발의 지속적인 확대, 파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심해 및 극지 광물자원 개발, 연안의 친수 공간 개발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양공학 분야에 있어서도 일등국으로도 발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가 해양공학 분야에 모여들어야 하며 우리 학회의 회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해양공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식지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편집위원 및 사무국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학회소식

○ 2009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일자 : 2009년 10월 22일 ~ 23일
- 장소 : 거제, 삼성중공업(주) 기술연수원, 거제삼성호텔
- 후원 : 삼성중공업(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참가인원 : 213명
- 프로그램
 - *특별강연: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도전 과제
 - 박대영 부사장(삼성중공업)
 - *일반세션: 발표논문 64편
 - *기획세션: 4개 세션 발표논문 24편, 초청강연 2회
(무인잠수정/ LNG FSRU 기술개발/ 수중로봇/ 구조재료의 강도, 파괴 그리고 신뢰성)



○ 신년하례회 및 이사/평의원 회의 개최

- 일자 : 2010년 1월 5일(화) 17:00~ 18:30
- 장소 : 부산 민락동 해촌
- 참석자 : 이사, 평의원 및 감사 총 27명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2010-2011년도 이사 임명장 증정 등
- 지회장(2010-2011년) 임명

영남지회	하문근 이사 (삼성중공업 상무)
서울·경인지회	조원철 이사 (중앙대학교 교수)
강원·충청지회	곽승현 이사 (한라대학교 교수)
호남·제주지회	권영섭 이사 (조선대학교 교수)

○ 포상

1. 학회상 상패 및 상금 수여(2009년 10월 22일)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에 조철희 교수(인하대학교)가, 해양토목학술상에 나원배 교수(부경대학교)가, 기술상에는 전용민 부장(삼성중공업)이 수상했으며, 상패와 상금이 각각 전달되었다.

2. 2009 추계학술대회 학생우수논문발표상 상장 전달 (2010년 1월 28일)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학생발표자를 대상으로 좌장 채점성적을 기준하여, 각 부문별로 한 명씩 선정하여 상장을 전달했다. 수상자는 해양항만부문에는 “FPSO 다점 계류 시스템의 최적 설계 연구”를 발표한 김재우(인하대학교 대학원 선박해양공학과), 기계재료부문에는 “SiCf/SiC 복합재료의 carbon 피복층에 대한 영향”을 발표한 조경서(동의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그리고 조선해양부문은 박정현(부경대학교 대학원 해양공학과)이 “비디오 모니터링을 이용한 다대포 해안선 변화 연구-태풍, 월별 영상자료의 해안선 추출기법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여 수상하였다.

3. 2010 한국해양공학회장상 상장 및 상품 전달(2010년 2월 10일)

2010년 1월에 각 대학교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추천 의뢰했으며, 9개 대학교 22명이 추천되었다. 이 중 포상 위원회의에서 최종 15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여 상장과 상품(손목시계)을 각 대학교로 전달했다.

- 조선·해양공학분야 : 박순배(부경대학교), 박성부(동의대학교), 김탁경(울산대학교), 이우전(목포해양대학교), 김상엽(서울대학교)
- 해양토목·건축공학분야 : 김민주(한국해양대학교), 박민재(목포해양대학교), 박병준(인제대학교), 김백민(목포대학교), 윤홍석(서울대학교)
- 기계·재료·에너지공학분야 : 이진혁(서울대학교), 홍석기(부경대학교), 강영진(동아대학교), 안희범(한국해양대학교), 김남호(서울대학교)

학회의 발전방안 I

편집위원회

2010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2월22일)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1. 학회지의 질적 향상 방안 검토

- 1) 인용지수 확대방안에 찬성하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함(학회장님과 관계되는 이 사님들과 협의하기로 함)
- 2) 대한기계학회 등 추진하고 있는 학회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기로 함

2. 영문학회지 발간건

- 1)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SCIE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본적으로는 발간에 찬성함
- 2) 이를 추진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여 관계있는 학회의 자료를 수집하여 진행하기로 함
(김준영, 정광호, 허동수, 나원배 교수님, 김윤희 편집위원장)

3. 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 1) 기존에는 소식지를 1년에 두 번 발행하였으나, 2009년에는 한 번 발행하였음.
- 2) 타 학회를 참고로 하면, 논문집과 학회지를 따로 발간하여 많은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모든 편집위원이 인지하고 있음
- 3) 가능하다면 우리 학회도 학회지를 따로 발간하고 지금의 학회지는 논문집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4) 회장님과 협의하여 소식지를 편집위원회에서 발간할 것이 아니라, 학회 차원의 다른 조직을 만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회지 소식을 좀 규모 있게 발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4. 기타

- 1) 학회사무실이 너무 협소하여 금번에 참석한 편집위원이 다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학회의 사무실을 부산역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함.
- 2) 영문학회지 발간을 위해 좋은 논문을 많이 투고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좋은 논문을 투고해 주는 회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함
- 3) SCIE로 가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 그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결의를 함.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학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4) 현재 3명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3명의 위원으로부터 결과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관계로 논문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됨. 이러한 시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2명의 위원으로부터 결과가 돌아오면, 그 결과를 편집위원이 판단하여 빠른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사진행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학회의 발전방안 II

학회 회원 증원을 위한 신입회원 입회 촉진 방안 제언

정회원 박승균 (삼성중공업, 기술고문)

조선 수출의 신규 수주가 급감하면서 해양 Plant공사 수주를 늘리는 일이 대형 조선소들의 주요 난국타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실제로 이미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접 학회인 조선 학회가 긴 세월 동안 연명조차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가 70년대 후반 수출선 사업이 확대되고 조선소의 기술자 수가 급격히 증대 되면서 조선업의 성장과 함께 오늘날의 질과 규모로 성숙했던 역사를 참고로 해양 공학회의 확대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일은 시의 적절한 일이라 하겠다.

확대 육성 방안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인 동시에 결과인 학회원 증원에 대하여 그 방안과 필요한 시책을 제언코자 한다.

신입 학회원 후보 군이 집중적으로 포진된 곳은 물론 대형 조선소 특히 3대 조선소의 해양Plant 사업 관련 기술부서들이며 설계원만도 2,000명이 넘지만 그 중 학회원 수는 극히 미미하다. 생산현장 부서, 영업, 구매, 품질, 부서들의 후보군 기술자를 포함하면 금방 3,000명이 넘는다.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회를 지원하게 유도하는 시책들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각 조선소에 영향력 있고 열정을 가진 고급 간부급 인사를 지부장으로 위촉 보임하여 회원 늘이기 Activity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원서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다니거나 회식 장소 까지도 서명을 받는 가입 촉진 Staff들을 조직화해서 운영해야 한다.

둘째로 일부 경영 수뇌진이나 고급 기술 간부들의 시각과 진솔 된 속내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짐작해보고 그런 시각과 속내를 어떻게 친 학회적으로 바꿔 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서 대단히 적극적인 Approach와 친목 도모 내지 설득이 필요하다.

한국의 해양 Plant산업은 우수한 조선소 설비, 경쟁력 그리고 납기와 품질의 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대형 Plant조립 업무에 참여할 뿐 Production Process Engineering이나 Sub-sea Installation, HSE, 자동화 및 대부분의 주요 특수 장비 분야 등에서 참여치 못하거나 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고 보니 수주나 건조 과정에 적지 않은 불편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학회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부분들이 해양 환경 Load하의 구조물 거동과 강도이다 보니 산업계에서 실무적으로 봉착하는 문제들과 공유되는 부분이 적어서 별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단시 하거나 기피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바쁘고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 해 있어 장차에 도움이 될지언정 지금 당장 학회 활동에 시간과 정성을 쏟을 형편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예하 직원들이 학회에 참여 하는 것조차도 “얼어 오는 것도 없이 작업 시간만 손실 내는 것 아니냐?” “우리만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연히 공개 하는 것 아니냐?” 등등의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며 직원들조차 같은 시각을 갖거나 다른 시각일 지라도 개인 돈 써가며 눈치 봐야 하는 학회 가입이나 참석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산학연의 노력 합일이 나아갈 길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피력되고 또 기업들이 연구 기금 출연이나 각종 장학 지원 등 적지 않은 실질적인 참여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왕성한 학회 참여 의식 고취에는 냉랭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20~30년 후에 재목으로 쓸 애기나무의 조림 사업이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고 게을리 하면 미래의 재목이 나올 수 없다는 이치를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학회의 회장단이나 간부 요원들의 실적 평가 요소로도 학회 회원 수 증대가 주요 사안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신입 회원 유치 Promotion에는 일반적인 모든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 잦은 접촉 기회 포착, 유대 쌓기, 친목 다지기, 공동 의식 만들기, Give and Take 거리 제공 등을 통해 경영진이 학회원 증대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회 수뇌진이 각 조선소를 정례 방문하여 학회 발전과 산업에의 기여 방안 협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셋째, 회원 가입 문턱을 낮춰 단기간 내의 대대적 회원 증대 Campaign을 펴야한다. 현재의 가입 기준은 학술 단체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산학연 공조발전을 위한 Catch Phrase 기치 아래에서라면 실제로 산업체의 기술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다음 사항들은 항목별 검토를 통해 입안하는데 참고토록 광범위한 Example의 제시이다. 지부장 산하 추진 Staff들이 초빙 대상 후보군 List를 만들어서 지구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1) 4년제 공과대학 전 과목 졸업자.
- 2) 4년제 문리과대학 이학부 전 과목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3) 1),2)의 중퇴자가 졸업까지의 잔여기간 이상 해양 산업

분야에서 기술자로 종사하고 있는 자.

- 4) 2년제 전문학교나 초급 대학에서 이공계를 마치고 해양 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기술자로 종사하고 있는 자.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양 산업체에서 4년 이상 기술자로 종사하고 있는 자.
- 6) 4년제 인문계 계열 대학교를 마치고 해양 사업체의 기술 및 준 기술 부서에서 8년 이상 근무 해온 자 또는 약간 미달 간부 사원(과장급 이상).
- 7) 2년제 인문계 전문학교나 초급 대학을 마치고 해양 사업체의 기술 및 준 기술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 해온 자 또는 약간 미달 간부 사원(과장급 이상).
- 8) 인문계 고등학교를 마치고 해양 사업체의 기술 및 준 기술 부서에서 12년 이상 근무 해온 자 또는 약간 미달 간부 사원(과장급 이상).

여기서 기술부서와 준 기술부서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 기술부서 : 설계, 연구소, 생산기술, 생산, QA, 생산계획/관리, 기술영업
- 준 기술부서 : 영업, PM, 계약 관리, 구매, 공무지원, 자재관리 등임.

여기서 산업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해양 산업의 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곳을 일컫는다.

- 부품 제조업체
- 기자재 제조업체
- 원료 제조업체
- 설계 업체나 도면 제도 업체
- 조립 업체
- 설치 업체

- 검사 업체/ 시험 업체
- 시운전 업체
- 건조재 제조업체
- 관련 공공 기관/ 협회

넷째, 학회지를 발간하여 산업 현장의 Report, 기술 제안서, 과학 기술 정보, 사진, 시, 수필 등 문예 창작 발표 소식 등을 게재하여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무나 기고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지금은 논문집만 있기 때문에 학자나 연구원 이외엔 범접이 어렵다고 느끼고들 있다.

다섯째, 학회 조직도 산업 실정에 맞춰 기계, 전 계장, Process/배관, HSE(보건, 안전, 환경)같은 분과를 만들어서 소위 의장 분야 전문가들의 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런 분야에도 학회가 개입하여 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Activity를 펴나가겠다는 Vision 제시를 함으로서 산업체 경영진의 학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여섯째, 단기 Campaign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성과를 내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전시를 보여줘야 하며 이어서 장기 Plan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신입 회원 1,000명 확보 계획” 같은 Catch Phrase를 표방하여 적극 대대적 Campaign을 해야 한다.

산하 기구인 “해양 Plant설계 연구회” 창설도 산학 연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낮은 관심도와 참여 저조로 집행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탈피하고 활성화 시키려면 신입 회원을 늘려나가는 Activity가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

참꽃으로 피고 지고

예부터 우리나라는 먹을 수 있는 것에는 “참”을 붙이고 먹을 수 없는 것에는 “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진달래와 철쭉을 비교할 때도 진달래는 참꽃, 철쭉은 개꽃이라고 하지요.

꽃으로라도 고픈 배를 채워야 했던 가난한 시절 진달래는 “참” 고마운 꽃이었던 게지요.

생긴 모양이 비슷하다고 철쭉을 먹었다가는 입이 퉁퉁 붓고 예전엔 죽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개꽃이라고 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만 기왕 한 철 피고 지는 꽃이라면 눈에만 좋은 개꽃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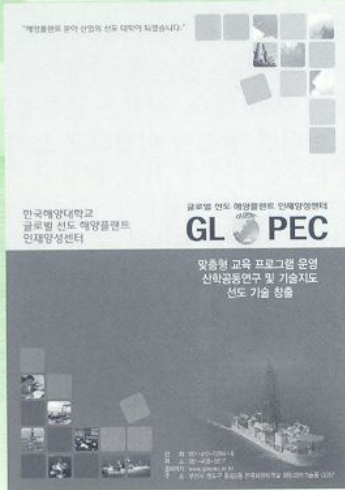
이롭게 쓰임 받는 참꽃으로 피고 지는 진달래가 훨씬 더 기특하고 곱게 느껴집니다.

이 봄, 참꽃의 생각과 마음으로!

심갑보님의 홈페이지(<http://www.kbshim.co.kr>)에서

산업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운영... 매년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배출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 선도 해양플랜트 인재양성센터



해양플랜트 산업은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조선산업에 이은 새로운 성장산업. 드릴 십, 원유생산저장설비, 해수담수화설비 등 해양구조물 제작기술을 비롯해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산업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산업이다. 해양산업의 거점 대학인 한국해양대 GLOPEC은 해양플랜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6개 학과(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공학과, 해양공간건축학과, 토목공학과, 조선기자재공학부, 전파공학과)가 참여해 해양시스템, 해양건축, 조선기자재 및 지능형무선통신 기술의 4개 트랙으로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트랙별로 해양플랜트 관련 교과목을 신설해 현장 실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실무 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실무 교육 및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환경개선 작업은 물론이고 산업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참

여 학생의 60%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어학강좌 개설, 국내외 유수의 해양플랜트 관련 전문가 초빙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동남권 해양플랜트 관련 선도 산업의 기술력 창출 및 산학협력을 위해 공동연구 지원, 산업체 기술지도 및 보유 장비의 공동 활용 등도 센터의 자랑거리. GLOPEC은 이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세계 수준의 해양플랜트 전문 인력을 300명 정도 배출할 계획이다.



공지사항

<학술대회 및 워크숍>

○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행사명 : 2010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 주제 : 바다, 변화와 대응 그리고 녹색미래
- 일자 : 2010년 6월 3일(목) ~ 4일(금)
- 장소 : 서귀포, 제주 ICC
-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 주관 :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공학회

○ 20th ISOPE-2010 Beijing Conference

- 대회명 : The 20th International Offshore and Polar Engineering Conference
- 일자 : 2010년 6월 20일(일) ~ 26일(토)
- 장소 : Beijing, China
- 참조 : <http://www.isopec.org/>

○ 9th ISOPE-PACOMS 2010

- 대회명 : 9th Pacific/Asia Offshore Mechanics Symposium 2010
- 일자 : 2010년 11월 14일(일) ~ 17일(수)
- 장소 : 부산, BEXCO
- 주최 : 국제 해양 및 극지 공학회(ISOPE)
- 주관 : ISOPE-PACOMS 2010 LOC
- 국내후원학회 : 한국해양공학회

○ 한국해양공학회 수중로봇연구회 춘계학술대회

- 일자 : 2010년 6월 11일(금)
- 장소 : 서울, 대우조선해양(주) 미래연구소

○ 한국해양공학회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춘계워크숍

- 일자 : 2010년 7월 1일(목) ~ 2일(금)
- 장소 :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 제 6회 한국유체공학학술대회

- 일자 : 2010년 8월 18일 ~ 20일
- 장소 :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 홈페이지 : www.ncfe.kr (4월28일 오픈예정)
- 논문신청 :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로 접수
- 사무국 : 053-746-9969, 6thncfe@gmail.com

○ ICCES MM2010

(The 6th ICC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shless and Other Novel Computational Methods)

- 일자 : 2010년 8월 17일 ~ 21일
- 장소 : 부산 롯데호텔
- 홈페이지 : www.iccesmeshless.org
- 주관 : 부산대학교 선박 및 해양플랜트 혁신 구조설계 연구소

회원 및 회원사 동정

<회원동정>

○ 박한일 회장 KBS 뉴스 출현

박한일 회장이 2010년 4월 15일 KBS 9시 뉴스 및 11시 뉴스 라인 등에 출연하여 천안함 선미 인양에 관련하여 해양공학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학회 홍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천안함 함미 인양의 KBS 생중계 방송에 나가 인양에 대한 해양공학적인 기술 해설을 맡기도 했다.



○ 조철희 회원(인하대학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의

조철희 회원(인하대학교)은 2010년 2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분야 부문과 정부 정책기획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3월 미래한국해양 수산 선진화 포럼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010년 3월 9일 서울 프라자호텔 창립총회에서 “해양에너지 활용을 위한 해양에너지 기술동향 및 적용성”으로 초청강연을 하였다. 참석자는 국무총리, 미래기획위원장, 농수산부장관, 국토해양부 차관, 전국 24개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이었다.

○ 홍석원 회원(한국해양연구원)

(사)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사무총장 선임

홍석원 회원(한국해양연구원)은 2010년 3월 (사)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 승진을 축하합니다 *

박대영	삼성중공업(주) 부사장
이영만	대우조선해양(주) 부사장

<회원사>

kt submarine

2천톤급 다목적 DP선박 도입으로 Offshore 산업 진출 역량 Upgrade

(주)케이티서브마린은 향후 더욱 적극적인 Offshore 사업 활동을 위하여 2010년 3월 10일에 NOR Offshore Ltd. 사로부터 2천톤급 다목적 DP 선박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매 선박은 2008년 건조된 이후 특수잠수 지원작업을 포함하여 전력 케이블 포설 작업이나 사할린 및 중동 해양유전 등 다양한 해양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실적을 가지고 있어 그 성능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이 선박이 국내에 도입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수중무인잠수장비(ROV)와 함께 선박의 주목적 시장인 해저 통신케이블 및 해저전력케이블의 포설과 매설, 해저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은 물론 동해 유전 및 해양심층수의 추가 개발, 침몰선 인양,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사업 등 다양한 해양개발 프로젝트에 보다 활발히 투입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로 국내 Offshore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목적선박 : 2,000톤급 DP선박(70mx15m)



▲T-800 : 800마력, 18톤 국내 최대급 작업 ROV

* 전근 *

성명	現 소속	前 소속
박준영	경남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이계홍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이영권	(주)오션 기술연구소 소장	국립수산과학원
조숙제	현대중공업(주) 특수선사업부	한진중공업

신입회원소개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 올해 2010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가입한 신입회원을 소개합니다.

No	성명	회원구분	소속/직위
1	이기영	정회원	해군사관학교/ 기계조선공학과/ 교수
2	황호진	정회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선임연구원
3	김문호	종신회원	GS건설(주) 토목사업본부/ 상무
4	최종락	정회원	GS건설(주) 토목사업부/ 부장
5	신현득	정회원	GS건설(주) 토목사업부/ 과장
6	한병극	정회원	GS건설(주) 울산신항만/ 차장
7	이재완	종신회원	(주)세광종합기술단/ 회장
8	이영만	종신회원	대우조선해양/ 부사장(기술본부장)
9	이봉영	정회원	GS건설(주) 부산신항현장/
10	구본규	정회원	GS건설(주) 부산신항 현장/ 차장
11	김수대	정회원	GS건설(주) 부산신항현장/
12	김국현	정회원	동명대학교/ 조선공학과/ 교수
13	김용직	정회원	(주)동화뉴텍/ 부설연구소 / 소장
14	최광규	정회원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15	배창원	정회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연구처/ 교수
16	김영훈	정회원	경남대학교/ 조선해양T공학과/ 교수
17	김재권	종신회원	두산건설(주) 토목사업본부/ 부사장
18	김철호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과정
19	박원규	정회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정교수
20	김승윤	학생회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석사과정
21	김동현	학생회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석사과정
22	이규열	정회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23	장대정	정회원	경상대/ 토목공학과/ 연구원
24	강태진	학생회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25	오상진	학생회원	울산대학교/ 해양공학/ 석사과정
26	김미선	학생회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석사과정
27	김영주	정회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선임연구원
28	정현석	정회원	동서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29	최규성	정회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
30	최성욱	정회원	부산시청/ 기업유치과/
31	설원재	정회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
32	이영진	정회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
33	박성현	정회원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운송시스템학부/ 교수
34	김태완	정회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35	이지훈	학생회원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과정

No	성명	회원구분	소속/직위
36	김태영	학생회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과정
37	이치형	정회원	STX조선해양/ 해양구조연구팀/ 주임
38	김병국	정회원	STX조선해양/ 해양구조연구팀/ 주임
39	최정은	정회원	현대중공업(주)/ 선박해양연구소/ 수석연구원
40	한순흥	정회원	카이스트/ 해양시스템공학전공/ 교수
41	권현욱	정회원	RIST/ 울산산업기술연구본부/ 선임연구원
42	정성욱	정회원	STX조선해양/ 조선해양연구소/ 대리
43	김동현	정회원	군산대학교/ 해양건설공학과/ 교수
44	천제호	정회원	한동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연구원
45	송현호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과/ 석사과정
46	김병모	학생회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학과/ 석사과정
47	손혜정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48	이동연	정회원	삼성중공업/ 대덕선박연구센터/ 수석연구원
49	한민구	정회원	거제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50	최현우	학생회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학과/ 석사과정
51	이종석	학생회원	경상대학교/ 에너지기계공학과/ 석사과정
52	허영애	정회원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53	박재영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석사과정
54	이준	정회원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시스템공학과/ 연구교수
55	고혁준	학생회원	제주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56	강남선	정회원	중소조선연구원/ 성능연구팀/ 연구원
57	최시훈	학생회원	울산대학교/ 조선및해양공학과/ 석사과정
58	신다래	학생회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연구실/ 석사과정
59	한중원	정회원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부장
60	김태용	정회원	STX조선해양/ 해양구조연구팀/ 대리
61	김시홍	학생회원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과정
62	이성종	학생회원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사과정
63	이정탁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사과정
64	Nguyen Khac Duy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석사과정
65	김인철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66	Payuda Theppichai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석사과정
67	김진호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지능형 설계자동화 연구실/ 석사과정

입회안내 및 임원소개

한국해양공학회 입회안내

학회 홈페이지(www.ksoe.or.kr) > 학회안내 > 입회안내에서 입회원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학회로 보내주시고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회원구분	입회비	연회비	회원구분
정 회원	10,000원	30,000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대학에서 해양, 조선, 기계, 토목, 자원, 전자, 재료, 에너지, 설비 및 건축공학 등 해양공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종신회원	10,000원	500,000원(종신)	
학생회원	10,000원	15,000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에 재학하는 자.
단체회원	없 음	100,000원	학회지를 수신하고자 하는 도서관 및 단체.
특별 회원	특급	100,000원	학회의 사업수행에 특별히 찬조 및 원조하는 개인 및 단체.
	1급	100,000원	
	2급	80,000원	
	3급	60,000원	
	4급	30,000원	
	5급	20,000원	
		6,000,000원이상	
		3,600,000원이상	
		2,400,000원이상	
		1,200,000원이상	
		600,000원이상	
		360,000원이상	

** 입회원서는 ksoe21@kornet.net 이나 팩스(051-759-0657)로 보내주십시오.

** 납부계좌 : 국민은행 123-01-0060-831 (예금주 : 한국해양공학회)

학회 임원(2010-2011년도)

회 장 박한일(한국해양대학교)		재정이사 최을근(현대중공업) 김문호(GS건설) 정대연(대영엔지니어링) 김철수(포스코건설)	
부 회 장 사업: 박상길(부산대학교) 학술: 박원조(경상대학교) 재정: 김재권(두산건설) 이영만(대우조선해양) 이재완(세광종합기술단)		기술이사 권영섭(조선대학교) 조효제(한국해양대학교) 하문근(삼성중공업) 이관목(한국해양연구원)	
총무이사 홍사영(한국해양연구원) 윤종성(인제대학교)		국제이사 홍 섭(한국해양연구원) 김우전(목포대학교) 조원철(중앙대학교) 조철희(인하대학교) 고재용(목포해양대학교)	
학술이사 곽승현(한라대학교) 서주노(해군사관학교) 김선진(부경대학교) 김인호(강원대학교)		연구윤리이사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구자삼(부경대학교) 기성태(서울산업대학교)	
사업이사 우종식(DSME E&R) 강병윤(리딩선박개발) 전호환(부산대학교) 김헌태(부경대학교) 김용환(서울대학교)		감 사 김가야(동의대학교) 최한석(부산대학교)	
편집이사 김윤희(한국해양대학교) 권순홍(부산대학교) 서성부(동의대학교) 홍남식(동아대학교) 신동목(울산대학교) 안석환(부경대학교)		고 문 신민교(한국해양대학교) 한건모(동아대학교) 오세규(부경대학교) 박노식(울산대학교) 류청로(부경대학교) 홍석원(한국해양연구원) 윤한기(동의대학교)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해양공학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65-6 원오피스텔 301호 / TEL : 051-759-0656 / E-mail : ksoe21@kornet.net

Homepage : www.ksoe.or.kr

인쇄소 한 립 원(주)

서울시 중구 오장동 206-3 넥스타워 14층 / TEL : (02)2273-4201 / FAX : (02)2266-9083

Homepage : www.hanrimwon.com

“해양플랜트 분야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의 거점 대학이 되겠습니다.”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UNIVERSITY

글로벌 선도 해양플랜트 인재양성센터

GL  PEC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지도
선도 기술 창출